

BERNARD WERBER × SEJONG SOLOISTS

# THE TIME OF CHIMERAS

베르나르 베르베르 × 세종솔로이스츠 **키메라의 시대**

베르나르 베르베르 X 세종솔로이스츠

# 키메라의 시대

2025. 8. 24. <sup>Sun</sup> 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공연시간 약 90분 \*인터미션 포함

관람연령 7세 이상

##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클래식 음악회에 출연하는 최초의 공연

국내에서만 1,50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르나르가 그의 신작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대본을 집필, 직접 내레이터로 무대에 선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늘, 바다, 그리고 땅속 세계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을 지배하게 된 새로운 생명체 '키메라'가 과거 인류의 악행을 되풀이하는 미래를 그린다. 이 거대한 서사에 작곡가 김택수의 '키메라 모음곡'이 세종솔로이스츠와 드니 성호, 최나경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후반부에서는 세종솔로이스츠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메타모르포젠: 변용 變容》을 연주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파괴된 문명과 상실된 인간성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담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향한 상상과 과거에 대한 성찰이 나란히 놓이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환기한다.

프로그램

---

**김택수**

Texu Kim  
(b. 1980)

**키메라 모음곡 \* 세종솔로이스츠 위촉곡**

Chimeric Suite \*Commissioned by Sejong Soloists

**베르나르 베르베르**  
텍스트/내레이터

**Bernard Werber**  
Text and Narrator

**세종솔로이스츠**

**Sejong Soloists**

**최나경**  
플루트

**Jasmine Choi**  
Flute

**드니 성호**  
기타

**Denis Sungho**  
Guitar

---

I N T E R M I S S I O N

---

**슈트라우스**

R. Strauss  
(1864-1949)

**메타모르포젠**

Metamorphosen

1부

**김택수**  
Texu Kim

**키메라 모음곡**  
*Chimeric Suite*

세종솔로이스츠 위촉곡  
Commissioned by Sejong Soloists

이 작품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키메라의 땅'의 등장 인물들과 줄거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또 소설이 인간과 동물의 혼종인 신인류, 키메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구인류(순혈인간)를 상징하는 바로크 음악의 어휘와 형식을 "돌연변이같이" 변주하고 있다.

음악 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자면, 알르망드, 사라방드, 지그 등, 바로크 조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듬패턴을 사용하되, 멜로디나 코드, 프레이징 등에 바로크 음악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대적인 아이디어들을 더해서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서사, 그리고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 이 뒤틀림의 정도도 바뀐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각 종족, 즉, 에어리얼 (인간+박쥐), 노틱 (인간+돌고래), 디거 (인간+두더지), 악셀 (인간+아홀로틀 도롱뇽, 하지만 악셀은 종족의 이름이 아니고 한 인간의 이름이다)은 각각 플루트, 기타, 저음 현악기 (첼로와 베이스), 그리고 고음 현악기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관련된다. 또 각 종족은, 그들의 캐릭터를 담은 라이트모티프로 대변되는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대조되지만, 결국 이들 모두가 "인간"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자세히, 또는 반복해서 들으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1악장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모티브,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그 이후의 분쟁을 상징하는 "진노의 날 (Dies Irae)" 멜로디 등도 꾸준히 나타난다.

다음은 각 악장의 제목과 그에 관한 간략한 소개이다. 각 악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키메라의 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관련된 내용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낭독한다.

1. **서주 (Prelude)** 기자가 '메타모포시스' 실험실을 발견하는 장면: 바로크 조곡에서 자주 1악장으로 나타나는 "알르망드" 스타일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비한 느낌을 주면서, 계속 돌고 도는 "돌연변이" 모티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2. **창조 (Genesis)** 알리스가 '메타모포시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신인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각 종족의 모티프가 에어리얼 (플루트) - 노틱 (기타) - 디거 (첼로와 베이스) 순으로 이어진다.
3. **디거들 (Diggers)** 첫 신인류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장면, 그리고 신인류와 알리스 일행이 3차 대전 이후 뉴 이비사에 생존하고 있는 구인류를 만나는 장면: 무겁지만 지그 풍의 흥이 희망을 담고 있는 디거의 모티프와 진노의 날 모티프가 교차된다.
4. **노틱들 (Nautics)** 뉴 이비사를 떠난 신인류와 알리스 일행이 퀴퀴파에 정착, 신인류들의 분열: 노틱을 대변하는 기타가 악장을 리드하며, 갈등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음악이 고조된다. 노틱의 라이트모티프는 바로크 조곡 부레와 관련이 있으며, 중간에 물 속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음사이를 빼곡히 채운 화음들을 사용하고 있다.
5. **에어리얼들 (Aerials)** 퀴퀴파를 다시 떠난 알리스, 그녀의 딸 오펠리, 그리고 에어리얼들이 발토랑으로 진입하는 과정: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종들의 질투를 받지만, 또 파괴적이 될 수 있는 에어리얼의 면모를 플루트와 변종 사라방드로 풀어내고 있다.
6. **갈등들 (Conflicts)** 각 종족들의 정착, 진화, 분열, 반목, 거기에 나타나는 '메타모포시스'의 한계: 지금까지 나온 라이트모티프들이 뒤섞이면서 다양한 장면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서사에 맞추어 음악도 절정에 치달는다.
7. **악셀 (Axelle)** 신인류를 보완하기 위해 알리스가 만든 악셀, 그리고 다시 신인류의 문제들을 목도하는 알리스의 독백: 악셀이 대표하는 원소, '불'을 담은 제스처로 시작하는 악장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심리적 폐허 속에서 알리스가 부르는 아리아(독백)로 이어진다.
8. **울림들 (Echoes)** '메타모포시스'부터 인생을 회상하는 알리스: 음악 역시 이전 악장들에서 나온 장면들을 복기하면서 마무리한다.

키메라 모음곡은 세종솔로이스츠의 위촉으로 작곡하였고, 2025년 8월에 초연 투어를 하게 된다.

글 김택수

## 2부

## 슈트라우스

R. Strauss

## 메타모르포젠

*Metamorphosen*

풍성한 사운드 안에 침울함이 스며 있는 <메타모르포젠>은 80세의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했던 뮌헨궁정극장, 드레스덴과 비엔나의 오페라하우스가 파괴된 모습을 본 뒤 2차 대전이 음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슬픈 감정을 쏟아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뮌헨 궁정극장이 폭격을 당한 1943년 10월의 어느 날,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위한 초기 스케치에 “뮌헨을 위한 애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작품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1945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한 달 간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괴테의 걸작을 전부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슈트라우스는, 특히 <<온순한 크세니엔>>에 수록된 두 편의 시,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Niemand wird sich selber kennen)와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Wie’s aber in der Welt zugeht)에서 나타나는 노작가의 자기 성찰에 사로잡혔다. 슈트라우스는 <메타모르포젠>의 스케치에 두 시의 전문을 옮겨 적었다. 따라서 슈트라우스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에서 나타나는 우울감은 세계를 덮친 비극적 사건 뿐 아니라 작곡가의 자기 성찰에도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메타모르포젠’이라는 제목 역시, 괴테가 수십 년에 걸쳐 집필한 작품들과 두 후기 작품의 제목에서 이 단어로 자신의 정신 작용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괴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작품을 쓰면서 슈트라우스는 아마도 그의 오랜 삶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의 스케치들은 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주제의 대대적인 변형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 곡의 가슴 저미는 주제는 그것을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의 유명한 구절과 연결시키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수많은 수정을 거쳤다. 제목에서 말하는 변형(metamorphoses)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완성된 음악에서는 주제들이 변형되지 않고, 심지어 변주조차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랩소디적 소나타 형식으로 된 교향악적 흐름에 따라 발전되기 때문이다.

슈트라우스는 <메타모르포젠>의 끝에서 첼로와 베이스 파트에 '장송 행진곡'의 선율을 직접 인용하고 악보에 "IN MEMORIAM!"(추모하며)이라고 적음으로써 베토벤과의 연결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에 '23개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연습곡'이라는 부제를 붙였고, 훌륭한 솜씨로 각각의 파트를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메타모르포젠> 특유의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 23개의 파트가 저마다 다르고, 악기 간 균형과 더블링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러면 서도 슈트라우스는 기본적으로 4성부, 5성부, 또는 6성부 짜임새를 유지한다.

엄숙한 도입부에서는 '영웅' 선율과 관계된 부점 리듬으로 하행하는 주제 선율뿐 아니라, 표현적인 상행 도약 이후 잔잔하게 구불거리며 하행하는 선율, 그리고 더 가벼운 장조 선율도 함께 제시된다. 이 제시부는 바그너의 가장 반음계적인 화성에서 비롯된 낭만주의 음악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유형의 전조를 자아낸다. 중간부는 앞서 등장한 선율들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환상곡으로, 개별 현악기들의 독주, 툭툭 던져지듯 다시 나타나는 주제, 견딜 수 없이 강렬한 클라이맥스가 특히 주목할만하다. 절정이 요란하게 지속되고 나면, 도입부가 미묘하게 변화된 채로 원래의 느린 템포로 돌아온다. 상당히 축소된 이 "재현부"에서 음악이 몇 차례의 고조와 완화를 거치고 나면, 주제가 축적된 후 육중한 코다가 시작된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저음 현악기들이 엄숙하게 베토벤의 '장송 행진곡'의 선율을 연주한다. 슈트라우스는 여기에 자신이 쓴 베토벤풍의 주제를 얹어 비통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파울 자허는 자신이 이끄는 취리히 콜레기움 무지쿰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고 슈트라우스에게 거듭 요청한 끝에 1946년 1월 25일에 마침내 <메타모르포젠>의 초연을 지휘했다. 자허는 두 번의 리허설에 슈트라우스를 초청해 지휘를 부탁했는데, 이 일에 대해 오페라 연출가이자 행정가였던 오스카 슈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강렬한 다이내믹과 템포의 가속을 통해 발전부의 주선율을 탁월하게 끌어냈다. 지휘자에게도, 콜레기움의 단원들에게도, 현장에서 참관중이던 몇몇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 텍스트/내레이터

베르나르는 일곱 살 때부터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타고난 글쟁이다.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 언론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글을 발표해 오다가, 드디어 1991년 120여 차례 개작을 거친 「개미」를 출간,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떠올랐다. 이후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영계 탐사단을 소재로 한 「타나토 노트」, 독특한 개성으로 세계를 빛어내는 신들의 이야기 「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인류의 모험 「파피용」, 고양이가 화자가 되어 인간을 상대화하는 「고양이」, 새로운 시각과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단편집 「나무」, 사고를 전복시키는 놀라운 지식의 향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특히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2000년 중앙 일간지 조사에서 '한국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작가로 뽑히는 등 한국과 큰 인연을 맺고 있는 작가이다.' '우리 친구 지구인'(2007) 등의 영화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 최나경 플루트

“플루트의 여신”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은 솔리스트로 세계적인 커리어를 쌓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플루티스트로,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오가며 매년 9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영국 신피니뮤직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플루티스트 명단에 최연소이자 유일한 동양인 연주자로 이름을 올렸고, 폭발적인 연주력과 폭넓은 레퍼토리, 독창적인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커티스 음대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의 감독 아래 비엔나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하며 유럽 오케스트라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음악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를 위해 작곡된 플루트 협주곡만 15곡이 넘고, 재즈 및 국악 연주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라리우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초빙되었으며, 교육자로서도 줄리아드, 커티스, 콜번, 하버드, 비엔나, 뮌헨 등 세계 유수의 음악 교육기관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있고, 카네기홀 유스오케스트라와 사라소타 페스티벌의 교수진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드니 성호 기타

드니 성호는 전통적인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이다. 그의 음악은 한국적 뿌리와 유럽적 영향을 융합시키며, 클래식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 만에 벨기에에 입양된 드니는 7세에 기타를 시작해 14세에 첫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벨기에 저작권 협회(SABAM)의 인정을 받았다. 유럽 콘서트홀 기구(ECHO)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카네기 홀, 베를린 필하모니, 루가노 마르타 아르헤리치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무대에 올랐고 해당 페스티벌에 초청된 최초의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드니의 협업은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었으며,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인순이, 안나 츠치야, 김범수, 박선주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왔다. 현재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연주활동을 하는 드니 성호는 토마스 험프리 (Thomas Humphrey) 기타를 연주한다.





### 김택수 작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상주작곡가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올해의 예술가를 역임한 김택수(1980년생)는 서울대학교(화학, 작곡 학사 및 작곡 석사) 및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작곡 박사 학위 취득(사사: 데이비드 쥬베이, 클로드 베이커, 스벤-다비드 산드스트룀, 진은숙, 전상직, 서정은) 후 현재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작곡 및 음악이론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일상에서의 경험”부터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소 전통적이지 않은 소재들을 세련되게, 또 한국적 정서를 담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뉴욕필하모닉,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리건 심포니,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랜트 파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오클랜드 심포니, 뉴 월드 심포니,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 알람 월 사운드 등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였고, 엘에이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샌디에이고 심포니, 안네소피무터재단, 앙상블 모데른, 멘델스존 코러스 어브 필라델피아, 세종솔로이스츠,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서울시향, 경기필, 부산시향,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콩쿠르, 평창대관령음악제, 주한독일문화원 등이 그에게 작품을 위촉하였다. 그는 버클로우 작곡상, 프롬 재단, 치비텔라 라니에리, 코플랜드 하우스, 아메리칸 모던 앙상블, 전미 작곡가/출판사 협회 (SCI/ASCAP), 중앙음악콩쿠르, 국제 윤이상 작곡상, 일신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 세종솔로이스츠

미 CNN 이 "세계 최고 앙상블 중 하나" 라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는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의 기획 공연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계 단체이며, 지난 31년간 20회의 카네기홀 공연을 포함, 세계 120여 개 도시에서 약 700회의 연주를 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임명 받았으며 미국 3대 음악 제인 아스펜 음악제에서 상주 앙상블로 9년간 참가했다. 대관령국제음악제(현 평창대관령음악제)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제 1회 음악제가 열린 2004년부터 7년간 호스트 앙상블로 음악제를 이끌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차세대 연주자 양성에도 힘써왔는데, 현재 뉴욕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함부르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종 단원 출신들이다.

세종솔로이스츠는 강호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최정상 기량을 가진 8개국 출신 11명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하여 1994년 뉴욕에서 현악오케스트라로 창설된 이래 실내악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퍼토리까지 다양한 편성의 공연을 해왔다. 미 CNN 연주 2회, 뉴욕 유엔본부 연주 3회, 미국 공영 라디오(NPR) 선정 '2003년 젊은 상임예술가', 2003년 KBS 해외동포상 예술부문 수상, 2008년 제3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강호 Founding Artistic Director





## 세종솔로이스츠 로스터

### 바이올린

샤동 왕 \*리더  
김은지  
김효진  
노예리  
데이비드 버넷  
마크 치엔  
설리만 테칼리 ①  
양지인  
오드리 박  
이인애

### 비올라

체옌 첸  
박지은  
브라이언 홍  
임세민  
폴 라라이아

### 첼로

헤수스 카스트로 발비  
릴런드 고 ②  
백나영  
여윤수 ③  
정수진

### 더블베이스

레이첼 케일린  
니나 버넷  
유이삭

### 기타

드니 성호\*

### 플루트

최나경\*

### 하프시코드

아렌트  
흐로스펠트\*

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크레모나, "ex-Cobbett", 1683산

② 마테오 고프릴러 첼로, 베니스, "ex-Lorne Munroe", 1707산

③ 칼 베커 첼로, 시카고, 1934산

①, ②, ③ 벽산문화재단 설립자 김희근 & 스트라디바리 소사이어티® 악기대여

\*객원연주자

**세종솔로이스츠 뉴욕/서울 사무국**

**총감독** 강경원

**예술 행정 팀장** 이그나시 가이다모비치

**재무 행정 팀장** 크리스 브라이머

**대외협력 전문위원** 백수현

**실장** 노혜연

**운영팀장** 유시정

**공연사업팀장** 서윤정

**공연사업 코디네이터** 김가영

**운영 코디네이터** 김가현

**마케팅 코디네이터** 허진석

**무대감독** 이주현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사장** 김명규

**사무국장** 박상희

**문화사업본부장**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 오채환

**기획·운영** 조혜진

**문화예술사업팀** 이준성 이부용 유선정 임지현 박지은 오호철 조혜진 신지원

**아카이브 사진촬영** 배현태

**무대기술 총괄** 임종민

**무대감독** 김평강

**조명감독** 임혜영

**음향감독** 나인권

**ACC무대기술**

**무대** 박성용 김선진 백용민

**조명** 김경은 조성효 조민주

**음향** 김학수 김왕민 정인범 김주희 김강산 황혜은

**영상** 조영래

**하우스 매니저** 최세영

**공연장 안내원** 강민지 김보람 김석희 김수정 박소연 박지형 서영섭 서현아 오윤지 최혜연



전시

## 뉴욕의 거장들

국내 최초 추상표현주의 집중 조형 전시로 세계적인 예술가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거장 21명과 함께하는 최고의 원화 컬렉션

기간 7.18.(금)~10.9.(목)  
 장소 문화창조원 복합 6관  
 관람연령 모든 연령  
 티켓가격 성인 13,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0원  
 ※ 48개월 미만 무료

##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단장 한 'ACC 엑스뮤직페스티벌'은 장르와 국경, 시간을 초월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미래지향적인 축제

기간 8.29.(금)~31.(일)  
 장소 예술극장 일대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티켓가격 1일권 4만원 / 3일권 10만원 ※ 7세 미만 무료



## ACC 빅도어시네마

가을밤, 빅도어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감동 예술극장 극장1 빅도어 야외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ACC 대표 영화상영 프로그램

기간 9.24.(수)~26.(금)  
 장소 예술극장 빅도어 야외무대  
 관람연령 작품별 상이  
 티켓가격 무료



ACC 브런치콘서트

년별 아트 퍼포먼스  
**페인터즈**

하루 2회 진행되는 브런치콘서트 100회 기념 특별공연  
놀라운 라이브드로잉과 첨단 미디어 아트가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아트퍼포먼스

기 간 9.24.(수) 11:00, 19:30  
장 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ACC슈퍼클래식

**백건우와 모차르트**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기 간 10.23.(목) 19:30  
장 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ACC슈퍼클래식

**게리호프만 첼로 리사이틀**

전세계 첼리스트의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 첼로 리사이틀: 베토벤

기 간 11.7.(목) 19:30  
장 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5만원 / S석 3만원

